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창

2021 | 가을 vol.54

창





월간 문화마실
광주의 모든 공연·전시·행사정보
매달 1일 발행

10
Kwangju Cultural Foundation
광주문화재단 10주년

예술이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마스크, 징크, 멈춤, 상실... 코로나에 갇힌 답답한 일상이 되었지만

오늘 전시장 작품 앞에 한참이나 서 있었다고,
글귀 한 줄에 위로받고, 그 노래 덕분에 힘을 냈다고,
오랜만의 공연장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그래서 다행히 잘 지나왔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 9~11월 / 매주 월요일 19:30
문화가있는날 9.29.(수) / 10.27.(수) / 11.24.(수)
렉처콘서트 9.9.(목) / 10.14.(목)
우수공연초청 9.11.(토) / 10.22.(금) / 11.12.(금)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9~11월 / 매주 토요일 15:00
무등울림 9.8.(수) ~ 9.10.(금)



표지이야기

김효삼, 「들판의 노래-봄」, 91×50cm, 수채
조선대학교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수채화 개인전 12회, 아트페어개인부스전 5회, 2인전 3회, 단체전 기획초대전 300여 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국무등미술대전, 광주 광역시미술대전, 순천미술대전, 개천미술대전, 남농미술대전, 도솔미술대전, 전라남도 미술대전, 섬진강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현재 한국미술협회, 광주전남수채화협회, 기독교미술협회 회원 신세계문화센터 수채화강사.

2	‘창’을 열며 플랫폼경제 단상	오형근
3	특집기획_ 문화도시 광주! 문화예술인이 살만한 도시인가?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프레임 변화 예술인의 권리 보장,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와 대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가 필요한 이유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현황과 제언	조인형 장도국 김다정 정윤희 김지원
14	문화인 탐구생활 역사를 노래하는 민중가수 주화주	이지호·주화주
19	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호기롭게 부르는 노래	임준성
22	문화진단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관광 거점으로 뿌리 내려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만연한 5·18관련 검열 행위에 묻는다	고선주 임인자
26	문화현장 잃어버린 시대의 문학작품을 발굴하는 작가, 淸陰 조성일 세인트 보이를 위로하며	주홍·조성일 김효비아
32	문화청년그룹 핸드메이드 문화를 선도하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 모람플랫폼	김종언
34	문화리뷰 남도여행에서 만난 남도의 관광자원,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	정지원
36	문화특독 민주광장, 오월의 신전이 되다 예술의 거리, 어디로 갈까요?	주 홍 김옥열
40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플랫폼경제 단상

오형근_재단 후원회장



요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정신이 없을 정도다.

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 등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들이 수십조의 상장사로 변모되는 과정을 보며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기존의 거대 플랜트 중심에서 정보의 유통이 부를 창출하는 무형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래한 조류에 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이런 플랫폼 기업문제로 빈부격차가 극심해 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을 통한 편리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명분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거대자본의 독과점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각국도 이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얼마전 카카오택시가 택시콜을 등급화해 최고 5천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책정했다가 소비자 반발에 부딪쳐 한발 물러선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금융·쇼핑·관광·숙박·물류 등 전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주택, 사무실, 숙박, 차량 등 도심 내 지대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을 위해 인터넷과 자본 간의 결합을

통한 공유경제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보화사회의 혜택을 입은 이들 업종들이 자본투자·연구개발·관리 등 핵심기능은 모두 수도권에서 이뤄져 지역인재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데 있다. 플랫폼경제는 기본적으로 집적화된 지역에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도 AI사관학교를 통한 인재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정부지원을 통해 시도하고는 있으나 시장의 규모와 인력풀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문가, 관료들도 모두 수도권을 선호한다.

이런 불리한 환경이지만 지역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경제주체나 시민들에게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세상에 도전할 인재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지역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하는 지역으로 전환하자, 아직까지 농경사회의 향수가 짙고 산업화시대에 뒤쳐졌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한발 앞선 지역으로 변모해 지역에 터를 잡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부터도 새로운 인식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

문화도시 광주! 문화예술인이 살만한 도시인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은 지역 문화계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술인들이 행복한 도시인지 자문해봅니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각 계 전문가와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굳이 법과 제도가 아니어도 예술인들의 노동자성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프레임 변화
조인형_ 광주전남연구원 광주경제교육센터장
- 예술인의 권리 보장,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장도국_ 배우,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와 대안
김다정_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가 필요한 이유
정윤희_ 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
-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현황과 제언
김지원_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프레임 변화

조인형_ 광주전남연구원 광주경제교육센터장



자연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먹이사슬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연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포식관계의 복잡성(생물종의 다양성)과 균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술을 포함한 사회·경제 시스템은 가치사슬이 먹이사슬을 대체하고 있을 뿐 자연생태계와 동일한 프레임으로 설명되곤 한다. 따라서 가치사슬의 복잡성(관련주체의 다양성)과 균형은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예술 생태계는 시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창작-유통(매개)-소비(향유)로 구성된다. 단위 생태계로서 예술은 전·후방에 위치한 산업과 연계되면서 가치사슬이 확장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의 존재와 가치사슬의 확장은 경제적 관점(컬처노믹스)에서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한편, 예술지원정책은 예술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예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책이 기대하는 바는 창작영역에서 자생성, 유통영역에서

행위기반의 충분성, 소비영역에서 향유증대가 아니었을까?

예술의 자생성은 예술활동을 통해 얻어진 수익이 투입된 비용을 회수(최소한의 요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작품의 재생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경제학 연구결과들은 예술이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증거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특히 기초예술 영역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자생력을 갖추 수 없는 환경은 예술생태계 형성 및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영학 문헌들은 환경변화에 대한 내적 부적응을 경제주체 퇴행의 원인으로 거론한다. 반면, 예술 경제학은 환경 자체를 자생력 위협요인으로 본다. 예술경제학의 태동을 알렸던 보몰과 오웬은 『공연예술-경제적 딜레마』(1966)에서 “한 사회의 경제(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연예술을 무대에 올리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한 재정압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환경변화와 예술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예술의 퇴행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안들은 합리성 여부를 떠나 예술가들의 경험에 베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원 주체인 지자체와 예술인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을 협의하고 합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덧붙여 전문가 의견보다 예술인 의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것이 아니라 더 원초적인 수준인 환경 자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지원정책으로 돌아오자. 지원정책은 지원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에 관계없이 특정 영역에서의 부족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다. 그렇다면, 예술영역에서 지원정책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던 의도가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물음, 다시 말해서 예술지원이 예술생태계에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냈는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첫째, 정책지원에 대한 예술계의 의존성 증가와 둘째, 예술가의 기획자화, 셋째, 단체창작활동의 프로젝트화, 넷째, 예술가의 존재적 불안의식 증대(정경은, 「예술지원정책이 지역 예술생태계에 미친 영향 연구」, 2019)로 요약하였다. 부연하자면, 예술지원이 예술가들의 작품제작 의지 약화, 부업병행에 따른 예술활동 소홀 등 작품에 대한 집중도 저하, 작품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향유권의 침해하는 결과로 연결되어 정책의도와 정책성과 간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공연예술에 한정하여 정책지원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인프라는 공연단체의 영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둘째, 창·제작지원은 극단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경영지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셋째, 문화복지가 지향하는 정책지원 대상자들은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없거나 약한 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이는 지원정책이 생태계구축, 시장원리, 자생력 등 합리성을 표상하는 개념들에 기초하여 수립·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을 담아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실험의 감소, 예술이 갖는 본원적 가치의 퇴행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안들은 합리성 여부를 떠나 예술가들의 경험에 베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컨대, 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으며 환경과 소통하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예술가들의 비판적 관찰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개선을 위한 1차적인 접근방법은 예술정책수립에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원주체인 지자체(예술행정 지원 기관)와 예술인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내용과 세부실천 방안을 협의하고 합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덧붙여 전문가 의견보다 예술인 의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문가는 취합된 의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들을 분류·해석하고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먼 길을 돌아 왔는지 모른다. 이제 예술가와 직접 대화하고 협의하고 실행하자. 

예술인의 권리 보장,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장도국_ 배우,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힘이 듭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광주요? 살아내기도 살아남기도 힘이 드네요.” 자랑하고 싶은 성과와 희망을 말하고 싶지만, 첫 문장부터 힘들음 고백할 만큼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참 힘이 듭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는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970년 전태일의 일기에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술 활동을 하며 경험했던 잘못된 일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 예술계 안팎의 좋지 않은 요소들을 알아가는 지금이 더 힘이 듭니다. 벗어나면 그만인 이 위험 속에서 문제 해결을 택한 이유는 제 마음이 안전지대에서의 편한 삶보다 개선된 예술생태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예술인 노동인권침해 문제 제기 이후 마주한 책임자들의 책임회피,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극단의 고용 형태, 마련되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 광주시 산하 공공예술

기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만 보더라도 예술인의 존엄과 직업적 권리, 복지와 처우를 개선해줄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80%가 ‘근로자성’이 전제되지 않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기에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의 입증도 모자라 문제 해결의 책임까지도 피해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위로와 구제보다 먼저 겪게 되는 입증과 다툼의 과정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잃어갑니다. 광주는 살아볼 만한 문화예술의 도시인가요? 예술인은 선택할만한 직업인가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장르별 고용, 계약, 창작과정, 창작물의 형태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서로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직업적 권리와 지위 보장, 복지와 처우 개선입니다. 큰 틀의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경험을 하면서 장르별로 필요한 내용(제도,

정책)을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 문화 위원장 시의원 김나윤님의 주최로 열린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정책토론에서는 제도(조례)의 필요성, 지역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 권리 보장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조례 제/개정을 위한 TF 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시의원 김나윤님과 현장 예술인들이 포함된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예술계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제정만큼 중요한 일은 제도를 근거로 시도해볼 정책들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조례 제정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개별 예술 장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고민을 나눠볼 창구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피해와 절박한 요구가 전제되어야만 만나고 들어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조례 제/개정이라는 ‘일’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파트너로서 조금 더 당연하게 서로를 만나내고, 그 만남의 앞, 뒤 과정에도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은 물론이고 불의의 사고까지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문화체육관광실 정책관 김요성님, 광주문화재단 정책본부장 김지원님, 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장 양승수님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저울의 수평이 어찌 흔들림 없이 한 번에 맞춰지겠습니까. 흔들림과 치우침, 밀고 당김도 모두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문화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로 한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



내셔야 합니다.

작년 9월에 발족한 대책위와의 활동이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광주시립극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준비, 노동자성 인정, 가해자 징계, 피해자 위로와 연대,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지역 조례 제정 준비, 광주시와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5·18 민주광장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촉구 캠페인, 7월 ‘지역 소극장 공연 관람’ 캠페인에 연대해 주신 대책위와 새로 만난 시민들과 미술, 음악, 영화, 연극계 동료분들 덕분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이 개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들이 조직된 힘을 발휘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연대가 더욱 소중한 상황입니다. 함께하는 동료가 힘들어하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보아라.” 앞으로의 과정에서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예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와 대안

김다정_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한 개의 예술작품을 향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완성된 작품 한 개를 올리기 위해, 작품 뒤에서 보이지 않은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예술노동자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예술의 현장에서 계약서 미작성, 상급자·클라이언트에 의한 갑질, 4대보험 미가입은 여전히 당연한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 가운데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66.4%로 가장 높았다. 노동형태 및 조건 가운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내용의 가장 높은 비율은 부당한 수익배분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부당대우 경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긴다’가 75%로 높게 나타났다. 더하여 프리랜서 전 직종 분야 중 2020년 전체수입이 가장 낮은 분야는 문화예술 이었고 이 중 여성 문화예술인은 남성에 비해 연 평균 약 400만 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예술인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월 100만

원의 수입으로 살아가며 일터의 부당대우에 취약하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 〈전우치with바리〉에서 벌어진 프리랜서 예술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문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광주청년유니온이 함께 연대하며 프리랜서청년예술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함께 목소리 내왔다. 예술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립극단 채택한 ‘작품별 단원제’라는 제도는 상임연출이 스태프들의 고용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 놓이고 위계관계가 설정 되었다. 이들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부상을 감수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계약했기 때문에 노동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배제된다. 권리침해에도 이들을 보호 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 최저임금 위반, 폭언, 갑질에도 당장 고용

이 불안정하기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 상급자와 클라이언트와 문화예술인 사이에는 견고한 계급적 위계가 생긴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로지 예술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예술인 57.4% 중 76%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응답자 72.7%가 월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다. 예술 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자는 전체 42.1%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또한 각각 24.1%와 27.7%로 나타났다. 전업 예술인 10명중 8명은 프리랜서로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하는 노동의 형태이다. 예술인은 곧 프리랜서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청년프리랜서 지원조례가 2020년 9월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프리랜서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정도로 명시되어 있기에 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명시하며 권리침해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더하여 지난 7월 6일 김나운 시의원실에서 주최한 <예술인권리보장과 지위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통해 예술인권리보장지원조례제정TF가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예술인권리보장조례를 시작으로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여 이들의 노동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예술기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채용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계약



서를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며 공공예술기관에서만은 '작품별 단원제'와 같은 시가 앞장서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생산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넷플릭스, 왓챠 등 거대 문화예술기업의 등장으로 기초예술이 약화되고 이미 거대자본이 유리했던 판에 위기가 닥치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현장의 창작자들이다. 거대자본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좋은 환경이 코로나가 가져온 큰 위기 중 하나다. 언제 일을 못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회적 재난들은 예술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

역사 속에서 예술은 자주 기득권과 자본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예술이 자본과 기득권의 대척점으로서 권력의 구조를 타파하고 극복해왔다면 예술가들이 처한 문제에 사회와 제도권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가 필요한 이유



정윤희_ 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정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천부적 인권에 준하며 예술의 존립 근거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블랙리스트가 용이하게 작동될 수 있었던 환경과 조건 즉, 수직적 일방적 관료 시스템의 폐단은 이미 만연했었다. 정부와 공공기관 스스로 자신의 책무와 존재의 이유를 거스르고 행정절차 및 행정법 관련 불법·부당 행위를 일삼으며 국정농단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현 정권의 국정 과제 1호는 ‘블랙리스트적폐 청산’이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위시한 문화예술 기관의 제도 개선과 법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헌법 제22조 제2항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 한다”에 근거를 두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정쟁으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김영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는 국회 상임위에서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를 밟고 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표현의 자유, 예술계 위계 성폭력, 불공정 갑질 등 권리침해가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예술인의 피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해결 조치하고 예술가의 직업적 지위의 근거가 되므로 예술인기본법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법제도가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예술인의 권리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법률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6장 구제 및 시정 조치 총 6개 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법제가 필요한 이유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예술인의 삶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한 이유는 수없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예술인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인이 생존의 위기에 떠밀리는 것은 전 인류의 공통의 과제일 것이다. 현재 계류 상태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긴박한 시대 전환에도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태롭게 방치된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다. 예술노동은 임시직 특성을 띄며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용역계약, 불공정한 계약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 직업적 지위(노동자 지위)가 부재한다. 현존하는 법과 제도, 긴급조치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특별고용 영역의 일환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매우 필요하지만 국가의 의도에 부합한 예술인만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일례로 공공기관은 여전히 예술 검열을 지속하고 있다. 내용 면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다르지 않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음’을 사유로 들어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 속 문구를 삭제하거나 작품을 가리고, 전시 계약을 파기하고 행사 자체를 취소시키기도 한다. 최근에 발생한 아시아문화원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전시홍보물에서 작품의 특정 문구를 삭제한 사건(2021)이 그렇다. <전북 문화예술계 A교수 성폭력 사건>은 예술선에서 도약을 꿈꾸는 예술인들에게 가해지는 위계 폭력이다. 요즘 예술가가 공공 주도의 각종 지역 프로젝트와 일자리에 참여하는 일이 많지만 예술가들이 직접 고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예술인이 공공 지원 사업을 받거나 용역계약 형태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예술활동 방해 노동권 침해, 갑질, 성폭력, 저작권 분쟁 등 불공정 침해가 매우 빈번하게 겪는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국가에서는 ‘예술인신문



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선은 어렵다. 시즌별 단원제로 운영하는 광주시립극단에서 부당해고, 갑질, 성폭력 사건에 광주시, 시립극단과 가해자가 책임을 방관하고 심지어 2차 가해까지 벌였던 이유는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과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듯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는 열악하다. 예술가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고 예술 검열, 불공정 갑질 위계 성폭력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조사-징계처리등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예술인권리보장법」이다.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공적 자원과 정책 결정 권한이 불균형적으로 공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 지원기관이 정치적으로 사유화되는 것이다. 일방적인 관료행정의 문제도 한몫한다. 지역에서 정주하는 예술가가 성장 도약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기본적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의 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수도권권에 비해 어려운 창작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공공이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위치지운다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문화민주주의 사회에서 상호 소통 협력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현황과 제언

김지원_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1.
문화예술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층위가 있지만, 이번에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사업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역할과 문화예술지원 정책 방향,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준비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시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광주시 문화예술 분야 총 지원액은 89억 9천만 원에 189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68건 4백만 원(평균 5.9백만 원), (일반) 민간경상·행사보조금 41건 5백만 원(평균 1백만 원), (통합공모)민간경상보조금 80건 2백만 원(평균 3천 4백만 원)입니다.

(통합공모)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세부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분야	장르	신청		선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지원액(%)	
합계	10장르	122	7,320	80(66%)	2,740(37%)	
시각 예술	소계	28	906	20(71%)	490(54%)	5·18 콘텐츠 (3건)
	서예	4	199	2(50%)	70(35%)	
	사진	6	231	4(66%)	70(30%)	
	장애인 문화	2	79	2(100%)	35(44%)	
	미술	16	703	12(75%)	315(45%)	
공연 예술	소계	83	6,108	50(60%)	2,000(38%)	5·18 콘텐츠 (8건)
	무용	3	224	3(100%)	60(27%)	
	국악	12	727	8(66%)	150(21%)	
	연극	15	1,138	6(40%)	250(22%)	
	대중/ 다원	28	2,387	18(64%)	1,100(46%)	
	클래식	25	1,632	15(60%)	440(27%)	
문학	문학	11	382	10(91%)	250(65%)	

광주문화재단의 창작지원사업은 동아리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지원액은 3백만 원에 326건입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1백만 원, 166건), 공연

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활동지원(3백만 원, 6건), 예술동호회활동지원(2백만 원, 10건),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 지원(4백만 원, 135건), 야외공연 창작지원(1백만 원, 8건), 지역장애인 문화예술 지원(2백만 원)입니다. 기초예술에 대한 장르, 분야별 창작지원사업 성격인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사업 내용	지원액
소계		1,514백만 원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연계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창작공간을 보유한 전문예술단체	210백만 원 (6건)
문화예술교류 지원	- 국내·외 공인된 기관(단체)과 상호방문 교류를 통한 교류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70백만 원 (5건)
지역특화 문화거점 지원	- 새로운 지역거점 발굴을 통한 주민밀착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환경과 연계된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150백만 원 (5건)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전문 예술 단체 - 전문예술단체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911백만 원 (105건)
	기초 예술 단체 - 지역 신규예술단체의 발전 가능성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설립 3년 미만의 전문예술단체	
	전문 예술인 - 중장년 이상의 역량 있는 개인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만40세 이상 전문예술인	
청년 예술 창작 지원	청년 예술인 지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과 창의적이고 실험적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예술인 지원	173백만 원 (45)
	생애 첫지원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	

II.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책 단위에서 광주광역시와 문화재단 보조금 지원사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올해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총 515건에 122억 7천만 원입니다.(광주시 189건 89억 9천, 문화재단 326건 32억 8천) 우선으로 지원정책의 방향 재설정과 함께 광주시의 통합공모 민간경상 보조금 사업과 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 사업 차별화를 꾀하는 일입니다.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정책 방향

구분	지원 방향
광주광역시	- 법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 - 법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 -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 - 국비매칭 행사성 사업 - 민선 7기 공약 및 시정방향 부합
광주문화재단	- 법과 조례에 의한 위탁사업 및 공기관 대행사업 -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및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 광주광역시 통합공모 민간경상보조금사업 중 문화재단 사업과영역이 중복된 사업

지역문화예술생태계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생성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생태계를 문화예술정책이 뒷받침하려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실태조사, 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청년예술인실태조사, 장애인예술인실태조사 등 정례적인 문화예술 통계조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지원정책이 설계되는 ‘정책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문화인 탐구생활

역사를 노래하는 민중가수 주화주

대담 이지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업팀장·
주화주 가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저희 같은 민주화운동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에게 그 시절 역사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늦은 장마의 먹구름이 도시를 잿빛으로 가득 채웠던 어느 오후. 빗방울이 지면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은 웅덩이를 피해가며 도착한 전일빌딩에서 가수 주화주씨를 만났다.

눅눅해진 옷자락을 말리며 안부를 묻고 우리는 가볍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젖은 옷과 장소가 그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는 80년 5월 전일빌딩 기둥 사이에서 총알을 피하며 부상자들을 옮기느라 옷이 온통 피에 젖었던 그날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지호(이하 이)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화주(이하 주) 저는 일찍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학업을 중단했던 터라,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밤에 업소에 나가서 음악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80년 5월과 87년 6월을 겪으면서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운동가요, 민중가요에 심취해 노래를 직접 만들게 됐어요. 또 친구와 민중가요 노래운동단체를 만나면서 민중가수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 주화주라고 합니다.

이 음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주 제 집안의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어머니께서 판소리를 배우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집에 행사가 있으면 어머니가 판소리를 하셨어요. 또 제가 어

릴 때부터 저희 집에 기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60년대 초반의 시골에 기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게 셋째 작은아버지께서 사신 기타를 저희 집에 놔두신 거였는데요. 사촌 형님이 집에서 기타를 치는 걸 보고 저도 자연스럽게 기타를 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광주로 이사해서 중학교 학업을 중단할 위기가 왔는데요. 사촌 형님이 광주로 와서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업소에서 연주를 하는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형님을 보니까 밤에 일을 하면 낮에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업소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죠.

이 업소에서 음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80년 이후로 민중가수가 되신 건가요?

주 네. 80년 5월을 현장에서 직접 겪고 시대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독재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고민을 했죠. 저는 음악을 해온 사람이니까 노래로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88년도에 노래패 ‘친구’를 만났죠. ‘친구’는 87년도에 노래운동단체를 결성해서 광주YWCA에서 첫 공연을 했고 다음 공연이 있던 88년도부터 저도 합류했어요. 본격적으로 민중가요를 부르게 됐고 그때부터 우리는 노래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시대에 맞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자는 것이 노래운동이었고 당시 매우 활발했습니다.



이 민중가수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80년 5월을 현장에서 겪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제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 그걸 계기로 사회문제에 대한 자각을 하고, 시대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죠. 5월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전의 일상에서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역사를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해보니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고 제가 모르는 게 많았다는 걸 알게 됐죠. 단편적으로 몇몇 위인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가,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역사의식을 갖게 됐어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된 거죠. 기존에 음악을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저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역사적 인식이 생겨나면서 음악인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확실히 당시에 사회문제에 대해 의식이 깨어난 분들이 여러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을 하셨던 거 같아요. 주화주 선생님도 그런 분들 중 한분이신 거 같고요.

주 당시에 광주문화운동협의회(광문협)라고 있

었어요. 그때는 민주화로 가는 변혁기였기 때문에 광주문화운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노래, 미술, 문학, 영상, 사진, 연극 등 다양했죠. 정기적으로 각 대표들이 모임을 가졌고요. 당시에는 사회문제에 깨어있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외롭고, 무섭기도 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런 개별 단체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게 됐던 거예요.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때와 가장 보람찼던 때는 언제이신가요?

주 가장 힘들었던 것은 노래패 ‘친구’ 활동할 때였어요. 그때가 88~89년이니까 40년 전 일이죠. 활동할 때 사찰도 많이 받아서 압박감이 엄청났어요. 단원이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단체에서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사실 형제보다 더한 동지애를 느끼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활동하기 무섭고 해서 서울로 갔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하죠. 그럴 때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람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노래패 ‘친구’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거기에 가입을 하고 단원이 된 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93년도에 해체되면서 제가 한 6년 정도 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그 시기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두렵기도 했지만 활동하면서 참 많이 행복했어요. 보람을 직접 느끼기도 했고요. 그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있었어요. 광주가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전대협 1기 그 큰 행사를 전남대 대운동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초대받은 거예요.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보람과 행복을 느꼈어요.



이 요즘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시는지, 지금은 어떤 노래로 대중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 93년도에 노래패 '친구'가 해체된 후, 저는 한국의 왜곡된 역사와 사실에 기반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던 단체예요. 해방 이후로 친일파에 대한 처벌이 없고, 반민족특위가 막 시작할 무렵에 이승만에 의해서 반민족특위가 와해되고, 친일인사들이 정부 곳곳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면서 이 나라의 역사는 왜곡이 되었잖아요. 그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초기 회원이 되어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후에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됐어요. '광주나비'라는 위안부 광주 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광주나비'에 파견되어서 운영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위안부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가 '빼앗긴 아버지 누이를 그리며'라는 곡이에요.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한

노래도 만들었고요. 작년에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노래를 음반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 19일에 개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요즘도 민중가요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무거운가요?

주 제가 피부로 느낀 반응은 여전히 그래요. 친근하기보다 무거운 노래라고 여기는 거 같아요. 우리가 투쟁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노래로 만들거든요. 요즘에는 현실에서 동떨어진 노래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존 매체에서 민중가요를 다루기를 불편해한다는 걸 느끼죠. 민중가요만이 아니라 민중미술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잘 자리를 잡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정부 시절, KBS에 <샘이 깊은 물>이라는 민중가요 소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때 조금 나오고 다시 민중가요가 매체에서 사라져버렸죠. 지금까지도 많은 민중가요가 불편하



게 여겨지면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 민중가요가 대중가요로써는 조명받지 못하기도 한데요.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 여전히 일제 잔재, 독재 잔재 세력들이 정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예술들은 불편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에 대해 사회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저희 같은 민주화 운동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에게 그 시절 역사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직접 알리려는 노력, 교육이 참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항일음악회에 몇 년째 참여하고 있거든요. ‘친일·항일음악회’라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좀 더 발전해갈 수 있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통계로 봤을 때 해방 후 교육계에 친일파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교육계는 역사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고 변화가 더딘 분야예요. 일제 부역자들이 명문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나라 교육계에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교육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교육 쪽에 신경을 써서 젊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반 하나 내는 것이 굉장히 큰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작곡을 해서 만든 곡을 음반으로 내는데요. 저는 거리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무겁고 비장한 민중가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래도 부르고요. 좋은 노래 많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민중가요도 같이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버스커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 버스커가 아니라요. 버스킹을 하면 보통 바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는 길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노래와 노래 실력과 연주 실력을 갖춘 버스커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버스커가 되고 싶어요. 아시아문화전당에 버스커가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잘 없더라고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줄어들었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거리에서 노랫소리가 많이 들리고 거기에 저도 어울려서 노래하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의 표정은 순수한 도전을 꿈꾸는 소년처럼 밝고 희망차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며 이 세대에게 교육적인 대중가요를 남기고 싶다는 가수 주화주.

그가 부르는 노래가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동요처럼 시대와 세대를 넘어 가슴속에 자리잡는 대중가요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호기롭게 부르는 노래

— 광주시 호가정(浩歌亭)

임준성_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입추(立秋) 지나고나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에 한기가 서려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숨이 막혔던 더위도 슬슬 뒤로 비껴간다. 계절의 흐름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돌아간다. 하지만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다. 어찌보면 삼복 더위의 햇빛보다 더 강렬하게 보인다. 일교차가 크면 사과, 배 등 과일뿐만 아니라 벼이삭도 더욱 여물어가니 이 정도 더위쯤은 일도 아니다.

광주에서 나주 방향으로 가는 길에 호가정(浩歌亭)이 있다. 새 도로명 주소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분토길 195’이다. 큰 도로 안쪽으로 이정표를 따라 시골로 한참 들어가면 호가정이 나온다. 계단을 따라 누정에 오르면 극락강과 황룡강이 만나 이루는 영산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하지만 옛날 풍경이 아니다. 누정 마당에서 왼쪽으로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사대강 공사를 한답시고 강의 흐름을 막았던 승촌보가 흉물스럽게 서 있기 때문이다. 말이 보(洑)이지 거의 댐 수준이나 다름없다. 산업사회에서 물을 이용한 관계시설의 중요시설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강물은 흘러야 한



호가정 현판

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보에 갇혀 막혀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호가정 오르는 길에 <광주전남 8대 정자 제4회 지정기> 안내판이 있는데, 그 내용은 광주광역시관광협회와 무등일보가 광주전남 누정 8곳을 선정하였는데, 1. 화순 물염정, 2. 담양 식영정, 3. 완도 세연정, 4. 광주 호가정, 5. 곡성 함허정, 6. 나주 영모정, 7. 영암 회사정, 8. 장흥 부춘정이라고 한다. 선정 기준이 궁금했지만 광주전남의 수많은 누정 중에 호가정은 단연 네 번째라고 하니 수려한 풍광과 유서깊은 역사가 아마도 선정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또 다른 안내판이 나온다. “이곳은 조선 명종 때 유사가 세운 정자이다. ‘호가’라는 명칭은 산수 간에 있는 흥취를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크게 소



호가정 전경(출처 : 광주광역시)

리내어 노래한다는 뜻으로 붙인 것이다. 유사는 중종 23년(1528)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는데, 승지로 있을 때 모함을 받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후, 이곳에서 산수와 시가를 벗삼았다. 정자 안에는 유사의 호가정 원운과 기(記)를 비롯하여 기정진(奇正鎭)의 중건기, 유보한(柳寶漢)의 중수기, 이안눌(李安訥)·오겸(吳謙)·김성원(金城遠)의 제영이 있다”고 하면서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4호’라 표기하였다.

호가정을 세운 이는 설강(雪江) 유사(柳泗, 1502~1571)이다. 광주 유곡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기질이 뛰어나 문장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20세에 사마시 합격, 26세에 대과 급제하여 무장현감을 시작으로 관직생활을 했지만 모두 외직에만 등용되었다. 그 이유는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지은 「묘갈명」에 보면 중종·명종 당대의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나는 사회적 혼란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유사의 처세와 성품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사는 1545년 을사사화와 1547년

정미사화를 거치면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으며, 이 시기에 호가정을 지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호가정을 둘러보면 너른 구릉지대에 사방이 시원스레 트여 있다. 강에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맞은편 무등산 상봉에는 늦여름 구름모자를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누정 앞에 돌비석으로 새겨넣은 유사의 「호가소서(浩歌小序)」를 읽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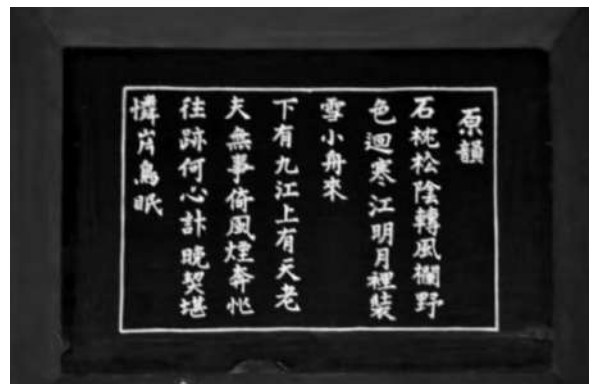
“내가 벼슬을 버리고 남으로 왔다. 병강의 남쪽 구강의 위에서 노닐며 바라본다. 왼쪽으로 추월산이 그 수려함을 보여주고, 오른쪽으로 월출산이 그 우뚝함을 보여준다. 동쪽으로 서석산의 굉장함이 서 있고, 서쪽으로 금성산의 청기함을 볼 수 있다. 잔잔한 호수가 수백 리에 뻗쳐서 넓고 넓은 데다 푸른 솔은 독에 들렀고, 하얀 모래는 언저리에 깔려 있다. 고기 잡는 어부와 사공들이 배가 왔다갔다 하며 노래를 부르고, 이에 명아주 지팡이에 기대어 큰 소리로 한 곡조 노래를 부른다. 물 좋고 산 좋음이여, 푸른 버들 아른거리고 갈대도 무성하도다.

담담한 나의 생각, 아스라이 서울의 대궐을 바라

봄에 멀기만 하도다. 남쪽 변경에다 말년에 살 곳을 마련하고 맑은 물결에 먼지 낀 옷깃을 씻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즐기며 호연의 긴 노래를 읊어보리라.”

水麗而山明兮	물 곱고 산 아름다워
剡白雲而濃碧霞	흰 구름 빛나고 노을은 질고 푸르네
魚倏而鳥樂兮	고기는 빠르고 새는 즐겁고
靄翠柳而茁蒼葭	푸른 버드나무에는 아지랑이, 푸른 갈대 무성하네
菀余懷之渺渺兮	아득한 나의 회포 가슴에 쌓여
望京闕而隔遐	멀리 대궐을 바라보노라
營兔裘於南陬兮	남쪽 모퉁이에서 토구를 경영하며
滌塵襟於清波	맑은 물결에 세속의 먼지를 씻네
從吾好而自樂兮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스스로 즐기려니
賦浩然之長歌	호연의 장가를 짓는구나

유사가 지은 「호가」이다. 한시가 아닌 부(賦)로 지었다. 전반부에는 호가정 주위 풍경을 노래하고, 후반부는 호강정에서 노니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산과 물, 구름과 노을, 고기와 새, 버드나무와 갈대는 모두 자연에서 노니는 동식물이다. 유사 또한 자연과 함께 노니는 삶이야말로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선비가 글을 읽고 그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뜻인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는지 멀리 한양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한다. 비록 자신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임금의 안부라도 걱정하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이기 때문이



호가정 원운

다. 어쩌면 자연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좇아서 마음대로 노닐며 사는 삶이 가능한 것도 임금의 은혜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로 인해 호연이라는 긴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石枕松陰轉	돌베개에는 소나무 그늘
風欄野色廻	아른거리고
寒江明月裏	바람부는 난간에
裝雪小舟來	들빛 돌아오네
	찬 강물 밝은 달 속에
	작은 배 눈 싣고 오네

마루 끝에 걸린 유사가 지은 제영 시판 「원운(原韻)」에서 첫 수인 오언절구이다. 누정에 올라 돌베개를 하고 누우면 소나무가 바람에 그림자를 흔들 거린다. 난간에 기대면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들판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 눈 내린 깊은 밤에 달빛 싣고 오는 작은 배가 정겹다.

누정 앞 마당에서 숨을 천천히 내쉰다. 들숨날숨을 조절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낸다. 작년 초부터 전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내몬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럴수록 마음공부가 필요하다. 내 마음을 두르고 있는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호기롭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이 곧 호연지기요, 마음챙김이다. ♪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관광 거점으로 뿌리 내려야



고선주_ 광남일보 문화부장

광주관광재단은 올 7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2020년 7월 30일 출범한 이후 조직 안착과 각종 시스템의 정착에 온힘을 기울인 해로 평가되고 있다. 출범 당시 1실 3팀 25명으로 조직이 꾸려졌다. 출범 당시 관광 컨트롤타워로서 광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내세웠다. 당시의 자료들을 살펴보니 • 국제관광도시 위상 정립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마이스(MICE) 산업 육성 • 관광혁신을 위한 책임경영 등 광주관광 경쟁력 강화와 혁신의 중추적 기능 수행이 주요 사업들이었다.

여기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관광’ 시대를 맞아 광주시 중점사업인 인공지능과 연계해 스마트 관광지 조성, 언택트 관광콘텐츠 개발 등 관광분야에 있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품격있는 문화광주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표방했다.

출범 당시 이용섭 시장은 “광주관광재단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해 종합컨트롤타워로서 혁신적 역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

다”며 “광주만의 독특함을 담은 온리원(Only One) 전략을 통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관광도시 광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1주년을 맞은 시점에 광주관광재단을 정확히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1주년을 맞은 만큼 출범 당시의 주요 사업들이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주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됐다면 관광재단 또한 빨리 안착될 것이다. 이는 조직의 조기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이와는 반대로 말뿐인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조직의 정착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체적인 종합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대개의 재단들이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조직을 뿌리 내리기 위한 출혈이 큰 나머지, 성과의 미진함을 그것으로 대체시키는 우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불가하다면 전문 컨설팅에 업체에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는 있다. 만약 조직이 겉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시민사회로부터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드린다. 일이 터지고, 오랜 시간

광주관광재단이 출범 2년 차에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성찰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발전의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일관되게 관광의 모멘텀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 인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 흐른 뒤에는 더 많은 개혁이나 보완에 관한 비용이 소요되어서다.

특히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내포해야 한다. 경제 산업부가 있으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개인의 삶이 나아지는가를 똑같이 광주관광재단에도 묻고 싶다. 광주관광재단이 있다고 해서 광주관광이 활성화되는 등 청신호를 켜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또 반대로 광주관광이 침체된다고 해서 광주관광재단을 탓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재단과는 무관하게 관광의 기본 모멘텀(momentum)이 있어야 한다. 관광 역시 변동하려는 경향이 클수록 활성화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다. 모멘텀은 변화에의 방점을 전제하고 있을 때 변화의 폭이 커질 것이다. 변화를 가속화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이른바 삼박자가 맞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 명품 관광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의 상위에는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및 관련 콘텐츠 구축이 놓여있다 하겠다.

또 무작정 상품을 펼쳐놓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는 해당 명소를 뒷받침할만한 관련 콘텐츠들이 씨실과 날실로 연계되지 않으면 결코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잔뜩 의미들만 나열해서는 더더욱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가령 5·18이 있다면 그것을 상징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공간에서부터 유무형적 자산들이 아카이빙화 되어있을 때 폭발력을 더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의 사실이다. 단순히 5·18이 일어난 곳이라고 하면, 현장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수많은 팩트와 스토리들이 구축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감화를 심어줘야 한다. 다시 오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야 이탈하지 않을 터다. 또 생태와 오월, 음식에 너무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를 테두리에 가두는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자각해야 한다.

가령 전시를 보러 오더라도 사진 맛집이 있어야 더 폭발적이 되는 이치와 같다. 전시 내용을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전시만 보고 나가는 단조로움을 피해 관람객들이 들었을 때, 강력한 사진 포인트가 있다면 관람객의 유인 통로가 더 다양화돼 그만큼 설득력의 폭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들이 곳곳에 깔려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하게 상품 진열만 해서는 결코 선택받지 못한다.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략이 부재하면 어떤 분야든 활성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광주관광재단이 출범 2년차에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성찰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발전의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관광 활성화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 일관되게 관광의 모멘텀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 인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재단이 기존의 관광 패턴들을 뺄 것이라 광주만의 참신한 패턴들을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관광재단이 재단 직원의 생계 유지처로서만 기능을 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거점이라는 단어를 자주 구사한다. 적어도 관광재단은 광주관광의 거점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관광 분야 뉴노멀(New normal)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만연한 5·18관련 검열 행위에 묻는다

— 아시아문화원 검열·작품 훼손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에 부쳐



임인자_ 소년의서 대표, 아시아문화원 검열·작품 훼손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 조사위원

지난 2021년 5월 26일 언론(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더팩트, 뉴시스, 광주드림 등)을 통해 2021년 5월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 예정이던 하성흡 작가의 전시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 하성흡의 수묵으로 그린 열사의 일대기〉의 포스터에서 “전두환을 찢”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전시 포스터에서 특정 문구를 삭제하는 일은 명백한 ‘검열’ 행위로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기간에 5월 정신을 검열·훼손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장소인 옛 전남도청에 세워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버젓이 일어나, 전시회의 작가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시민 모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착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회의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 사건 ‘검열’ 행위를 최초로 지시한 아시아문화원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원인 제공 및 검열·훼손한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책임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원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시민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공동으로 ‘아시아문화원 검열·작품 훼손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인기(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박인동(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임인자(소년의서 대표)가 참여하였다.

조사결과 2021년 5월 6일, 아시아문화원, 광산구청, 하성흡 작가, (주)와사비아가 참여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 하성흡 작가가 작품 7호 「광주의입」을 외벽 홍보물과 홈페이지 홍보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아시아문화원 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열하여 작가에게 1차로 작품의 교체를 요청하였으

나, 작가가 수용하지 않자, 2차로 작품 7호 「광주의 입」에서 “전두환을 찢” 문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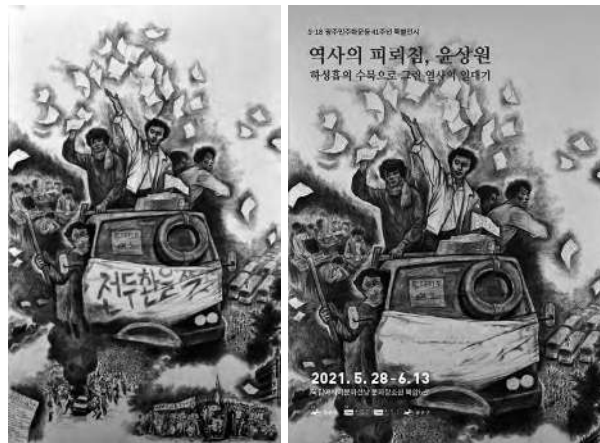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원 장○○은 홍보물의 삭제를 검열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품이 아닌 홍보물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삭제 지시를 ‘교체 또는 수정’을 지시가 아닌 ‘제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검열의 폭력성, 본인이 주장하는 국가기관의 지시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후, 아시아문화원 민주교류평화센터장이경윤이 승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 게재 당시, 광산구청에서 기획사인 (주)와사비아에 문구 삭제 지시한 사항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은 아시아문화원과 6차례 전시의 주최, 주관 문제로 논의를 하며 아시아문화원에서 삭제를 한차례 언급했고, 아시아문화원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열 행위를 막지 못한 것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아시아문화원 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 성주무관에게 삭제된 홍보물에 대한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하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사실상 승인한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 하성흡의 수묵으로 그린 열사의 일대기〉전시에서 일어난 “전두환을 찢” 문구 검열과 삭제는 몇 차례의 승인을 거쳐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원 장○○이 시작하였고, 아시아문화원 전 민주교류평화센터장 이경윤이 승인했고, 광산구청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삭제를 지시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사실상 승인하면서 결국 문구가 삭제된 채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다.

이러한 검열과 문구 삭제 행위는 5·18민주항쟁을 경험했던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원의 역사 인식의 부재 및 국가기관이 삭제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이는 5월 26



좌 7호 「광주의 입」 억울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투사회보를 만들다 (1,939×1,300) (하성흡 作) 우 “전두환을 찢”이라는 특정 문구가 삭제된 홍보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2021. 5. 21))

일 발표한 사과문과 같이 한 “직원의 실수”나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검열과 삭제 지시, 아시아문화원 민주교류평화센터장의 승인, 광산구청의 수용과 기획사로의 삭제 지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실상 동의 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이다. 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산구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이후 시민단체 등에게 이러한 계획과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어난 검열이 처음이 아니다. 또한 아직도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기관에서 “전두환”이라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5·18을 삭제하도록 하며, 예술작품에 삭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명백한 검열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한다. 더 이상의 폭력과 고통이 5·18민주항쟁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에 세워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잃어버린 시대의 문학작품을 발굴하는 작가, 淸陰 조성일



대담 주홍 작가, 재단 부운영위원장·조성일 작가

한글복원문학과 창작 작업을 위해 광주에 터를 잡고 글을 쓰고 있는 조성일 작가를 만났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와 1945년 해방 이후 ‘이념’으로 분단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묻혔던 작품들, 자료조차 찾기 힘든 그 시대 지성의 글에 대해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찾아 복원하는 한 사람, 조성일 작가를 소개합니다.

주홍 복원문학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가요?

조성일 ‘복원’은 여러 의미와 의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신구의 복원에서부터 문화재 및 거대한 건축물의 복원에까지 다양한 분야의 ‘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협소하고 국지적인 부분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및 6·25 동란을 겪으며 국치(國恥)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모두 맛보아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현장에 한글교과서 조차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미군정은 한시적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주류사회를 형성했던 친일문인 및 교육자들을 대거 동원해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급조하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죄책감과 죄스러움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편집자들은 강점기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문인들을 비교적 차별없이 교과서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박도 잠시,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정의 시선과 국민들의 관심은 전쟁의 포화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고 3년간의 지리한 전투가 끝나자 한반도는 두동강이가 난 채, 남한은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울물처럼 사건들이 휘몰리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던 온갖 분야의 친일 세력들이 전쟁 후에 모든 분야를 장악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945~1953년 사이의 교과서와 6·25전쟁 이후의 교과서가 완전히 달리 개편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린 새싹들은 친일문인들을 위주로 문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정한, 이미 깊게 각인된 문인들과 강력한 족적을 남긴 몇몇 독립운동에 참여했

던 문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친일문인들이 교과서를 도배하다시피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자 김활란과 모운숙 그리고 서정주가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잊혀진 우리들의 글쟁이들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홍 선생님, 서울이 고향이죠? 그런데 광주에서 작업하며 정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조성일 일년에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며 전국에 있는 중고서점들을 방문하는 게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전국 어딜 가나 문학비 하나 없는 곳이 없고 문학관 없는 곳이 없고 문학의 도시라는 명예를 스스로 가슴에 달지 않은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9세기 이전의 고전문학(한문문학)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교수진이나 단체는 있어도 20세기 초 순수한글 문학을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도시나 단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희망하게 된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20세기 초 한글 복원문학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해 정착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곳이 광주의 몇몇 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일이고 방법론이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窓』의 관심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건 혼자서 복치고 장고치고 하는 상황이라 속도는 잘 나지않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마차처럼 뒤통거리고 있습니다.

주홍 대중성도 없고 돈이 되지 않는 작업을 홀로 지속하셨군요. 그동안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요?

조성일 오란 장정심의 1934년 초판본 시집 『금선(琴線)』이 지난 2019년 8월에 독립출판사 도서출판 우아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여러 책 중에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1934년이면 일본이 한반도를 짓밟고 북진해 중일전쟁을 일으킨 매우 삼엄했던 시기였다는 점과 오란 장정심이라는 여류 시인이 나라의 안녕과 독립을 기원하는 순수한글 시집을 발표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남성중심의 문단 분위기와 신사참배나 창씨개명을 강조하던 일본의 압제 속에서 이런 시집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란 장정심은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던 교육자 김활란 박사 및 시인 모운숙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대의 여성리더였지만 어떤 연유로 지금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는지도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집과 함께 발행된 저의 탐구서 『우습을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창작자이고 창작집을 계속 낼 예정이라서 한글복원문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병행해 출판할 생각입니다.

주홍 창작자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시도했고 또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조성일 과거의 출판환경과 지금의 출판환경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문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문학에 남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출판사를 운영할 때에는 바늘귀처럼 통과하기 어려운 신춘문예 이외에도 추천이나 글의 수준 정도를 평가에 여러 문예지를 통해 등단할 기회를 얻는 작가들이 많았고 실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같은 수준높은 문예지들이 거의 사라진데다가 신춘문예를 통하지 않은 작가는 출판사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출판사가 경영을 위해 돈이 되는 작가나 해외의 유명작가의 책을 번역해 옮기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판사의 경영철학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살아남아야 출판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작자들이 기댈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독립출판사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대개는 열악한 상황에서 개업과 폐업이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여러 곳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이곳을 이용해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한 것은 나름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책을 인쇄하기 전에 관심도를 측정하는 좋은 리트머스 창구로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란 장정심의 시집 『금선』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출판이 되었고 제 시집도 그 방식을 따랐지만 아쉽게도 몇 만 원의 차이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출판을 앞둔 다른 책들과 함께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주홍 광주에 잘 정착하셔서 의미있는 작품활동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조성일 저는 궁극적으로 좋은 창작집을 내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와 더불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료들

을 모아 '20세기 초 한글복원문학관'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한 명의 작가를 위한 문학관을 세우면 콘텐츠의 재생산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고 관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는 문학관은 전국의 문학과와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독자들의 집결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백석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시인이었지만 지금은 김소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일본의 경우 가네코 미스즈처럼 사후 50년이 지나서 발굴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란 장정심에 관한 자료를 찾을 때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구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러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글복원문학사업의 긍정적인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우리 한글문학을 발굴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한국적인 방식의 콘텐츠 재생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복원문학관과 전문 출판사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단이 모이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풍성한 우리 문학의 우월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서울은 워낙 방대한 규모의 도시이고 어떤 주제를 집중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는 창작자에게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주홍 예술가가 살기에 매력적인 도시가 광주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일 작가는 20세기 초, 잊혀진 글이나 오래된 문학작품을 읽어주는 '시인남자와 책 읽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자료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세인트 보이를 위로하며

— 에쿠우스와 샤릭, 그리고 相生을 생각하며

김효비아_ 시인, 광주복지재단 '시사랑' 강사



먼저 '세인트 보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인트 보이는 며칠 전 인류역사상 미증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동경올림픽에서 독일선수가 탔던 말의 이름이다.

근대5종 종목인 승마 경기 중 솔로이는 울부짖으면서 말을 몰았다.

자신이 탄 말 '세인트 보이'가 점프 뛰기를 거부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말을 때려라”고 감독은 선수에게 외쳤고 실제로 선수는 주먹으로 말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기 이후로 국내외 인터넷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선수와 마치 미소를 짓는 듯 하는 세인트 보이의 표정이 함께 나온 사진이 화제가 됐다.

그런데 필자가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된 것은 말이 웃는 듯 하는 표정은 기분이 좋아서기보다는 힘들어할 때 나오는 공격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말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대상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서적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호 교감하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마 말(馬)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연극이었던 <에쿠우스>가 떠올라서 며칠 내내 마음이 울적하고 아팠다.

여덟 마리 말의 눈을 찢어버린 소년 알런,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실화로 알려진 이 작품에서 소년은 말을 사랑하고 숭배한다. 매일 밤 그는 에쿠우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털을 쓸어내린다. 말 앞에서 그는 순한 어린 양이 된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절대적이고 아름다운 신, 에쿠우스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즉, 소년은 에쿠우스를 사랑해야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모도 외면하고 보호받지 못한 가냘픈 소년의 비극을 통해, 그를 안아주지 못하는 매정한 사회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상생의 문제 중에서 과연,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애깃거리가 될까?



연극 <에쿠우스>의 한장면. 출처: 가마골소극장



독일 선수 아니카 솔로이가 타고 있는 말 '세인트 보이'의 웃는 표정이 화제가 됐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고매한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신을 믿는 존재로서의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행위? 연극 <에쿠우스>에서는 위와 같은 물음들, 즉 우리가 암암리에 만들어낸 '정상'이라는 잣대에 대하여 묻고, 여기서 정상적인 것이란 '아이의 눈 속에 웃음이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럼, 무엇이 정상인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자는 정상이고, 동물을 위해 죽기까지 숭배하고 사랑하는 자는 비정상인가?

왜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겹쳐지는 동물은 1920년대 러시아의 미하엘 불가코프의 소설로 만든 연극 <개의 심장>에서 '샤릭'이라는 개였다.

떠돌이 개였던 샤릭은 한 겨울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다. 의사 필립은 그에게 소세지를 주며 유혹해 집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연구

실의 동물실험 대상으로써의 샤릭은 개인간이 되면서 시종일관 인간의 정체성을 집요하게 묻는다.

인간과 생명의 화두는 100년이 지난 현재와 앞으로도 미완의 논쟁거리가 아닌가. 개가 인간에게 던진 문제제기는 곧 인간으로서의 존재방식과 한계성에 대한 딜레마가 아닐까.

앞서 '세인트 보이'와 마찬가지로 존재의 자유는 인간이건 동물이건 관계없이 소중하고, 누구도 존재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음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보니, TV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그룹 코리아나가 부른 주제가가 흐르고 있다. 「손에 손 잡고」 중에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지구의 위기라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야만 한다.

내일은 또 어떤 코로나의 변종들이 인간을 시험할까? 과연 신의 섭리는 무엇인가?

앨빈 토플러도 예고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지구상에서 이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먼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인 발목을 움아매고 있는 현실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두려운 가림막이며, 도미노처럼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가득찰 것이고, 어떤 전문가도 뚜렷하게 제시할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이 때로 두렵기조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유한 인격체로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하는 품격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 세인트 보이를 위로하며

김효비아

“꽃으로도 꽃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미학적인 문장을 맨 처음으로 누가 썼을까요

‘꽃의 시인’으로 불리는 김춘수였나요?

혹시 비폭력주의자 간디였을까요? 박애주의자 마더 테레사였을까요

*세인트보이에게 주먹질을 날린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말이 말(言)을 듣지 않아서”라고 분풀이를 했구나 봐요

죽느냐 사느냐

피와 눈물과 땀의 색깔이 고작, 세 종류뿐인 그 전쟁터에서도

인간의 자격과 예의를 역설하네요

만약에 21세기적인 삶과 죽음의 트렌드에 대하여 말해 보자고 한다면

인간이냐, 동물이냐의 프레임을 넘어

한편으로는 반려동물과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 사람도 심심찮은 풍조를

그리고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어요

이쯤에서 고백할게요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살 비슷한 행위를 한 것은

우리 집 메리가 마루 밑에서 거품을 물다가 죽었던 열세 살 때였어요

...중략

보세요, 자기 새끼가 왜 죽었는지 모른다는 부모가 울지도 않고 만천하를 찌려보네요.

검은 리본을 두른 액자 속에서 아이는 실핏줄 터진 눈으로도 웃고 있어요.

* 세인트 보이 : 승마 선수의 말.

‘2020 도쿄’에서 독일 선수가 경기 중에 탔던 말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공개되어 선수자격을 박탈. 또한 올림픽을 포함한 근대5종 경기에서 동물복지와 더불어 선수들의 윤리를 위하여 경기규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퇴출사유를 발표했다

* 동물권리론 : 인간이 가진 권리는 모든 생명체에도 있다는 기본 전제.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 배우 김혜자가 아프리카 등 구호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 책 제목.

핸드메이드 문화를 선도하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 모람플랫폼



김종언_모람플랫폼 대표

#1. 모람플랫폼의 소개

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클래스 플랫폼 모람입니다. 저희 ‘모람플랫폼’의 ‘모람’은 모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클래스를 모아 시민분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쉽게 만나볼 수 있게 연결해드리는 플랫폼입니다.

평소에 “핸드메이드는 어려워, 경험하기도 쉽지 않아”라는 불편함을 느껴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작가님들과 시민들이 ‘모람플랫폼’에 모여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핸드메이드의 감성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거운 핸드메이드 클래스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2. 핸드메이드 클래스 플랫폼을 도전한 계기

저는 원래 핸드메이드 클래스나, 문화예술 등 이런 분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던 차에 고향 친구 후배가 저에게 전시회 마케팅을 부탁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와 함께 전시회의 기획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다보니 문화예술이라는 세계도 저에게 상당

한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에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구나, 이 가치를 알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주로 돌아와 진행을 했었던 것은 ‘리버리티’라는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핸드메이드 작가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결과물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소비자분들에게 핸드메이드가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핸드메이드 클래스 플랫폼 ‘모람’입니다.

지금 저희의 지향점은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 격차를 저희 플랫폼의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3. 광주광역시 핸드메이드 문화의 현주소는?

광주광역시는 예향의 도시,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하며, 청년들과도 함께 많은 시도를 하고 있

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내 운영 중인 핸드메이드 공방은 등록된 것만 약 2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하고 좋은 클래스들이 많지만 각각에 대한 정보를 찾고 클래스를 수강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복잡한 현실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검색하여서 찾은 후 연락을 통해 가격 및 일정을 조율하고, 수강하기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인데요. 작품 활동을 하시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작가님들과 문화 여가 생활로써 다양한 체험을 원하시는 시민분들을 잇는 역할을 ‘모람플랫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핸드메이드 문화가 일상생활 속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4. 시민분들의 문화 체험을 위한 모람플랫폼의 노력 또는 성과가 있다면?

모람플랫폼이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작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핸드메이드 클래스 문화를 알리기 시작한 것이 2020년 12월입니다. 벌써 약 9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월평균 광주 시민 약 6만 명이 방문하여주시는 플랫폼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운영하며 작가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핸드메이드 클래스 문화를 알리고 쉽게 접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콘텐츠도 제작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뛰어나가다 보니 저희의 마음이 통하여 많은 분들이 모람을 찾아주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저희 모람은 약 200여 개 이상의 클래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많은 시민분께서도 클래스를 수강을 하시면서 핸드메이드 클래스 문화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5. 작가님들과 예술가분들이 모람플랫폼과 함께하시는 방법은?

현재 모람플랫폼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작가 신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운영하시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신데요. 공간을 직접 운영 중이신 분들도, 공간은 없지만 클래스 진행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도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와 온·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고, 이후 작가님들께서는 운영방침에 따라 핸드메이드 클래스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표번호(1877-1942)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6. 모람플랫폼의 비전은?

저희 모람플랫폼은 SNS와 블로그, 온오프라인 채널들을 통해 시민분들과 소통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의 활동과 취지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핸드메이드 클래스 플랫폼, 모람”이라는 문구처럼 광주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는 친근한 핸드메이드 클래스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7. 시민분들과 작가님들에게 바라는 점

시민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궁금함 속에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핸드메이드 클래스 문화를 모람에서 찾아가며 도전해보시고 그 즐거움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께 바라는 것은 작가님들의 소중한 작품들과 경험들을 시민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모람과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좋은 시간들을 모람을 통해 더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할 수 있는 핸드메이드 클래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남도여행에서 만난 남도의 관광자원,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



정지원_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청년인턴

유럽에서의 액티비티 첫 만남

최근, 다가오는 9월에 여수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여수의 하늘을 날다’로 정했다. 쥘트랙과 해상케이블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NGO활동가로 일하기 전, 관광업계에 종사했었다. 해외여행 전문 여행사에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국외여행 인솔자 업무를 자주 수행했다. 수많은 사람 그리고 청춘들과 각국을 누비며 13개국을 경험했다. 특히, 유럽을 자주 다녔는데 고유의 클래식함과 웅장함을 지닌 관광지가 많았다. 반면에 활동적이고 쾌감을 선사하는 액티비티는 앞선 관광자원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의 첫 액티비티는 스위스에서 체험한 행글라이더였다. 자연의 상쾌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스위스 하늘을 비행할 때의 짜릿함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를 떠나, 이직 후에는 국내 여행을 자주 다녔다. 남도 사람으로서, 전라도 곳곳을 누볐는데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 액티비티 요소는 정말 다양했고 훌륭했다.

패러글라이딩 : 기차마을 곡성의 하늘을 날다.

광주에 인접한 곡성은 기차마을과 장미축제, 여름 피서지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다. 살면서 패러글라이딩을 2번 해보았는데, 모두 곡성에서 체험했다. 구성저수지 인근의 비행장에서 시작하는 패러글라이딩은 상공 600M를 날며, 곡성 읍내와 기차마을이 위치한 오곡면 일대, 남원 일대의 푸릇한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액션캠에 10분간의 비행 모습을 담아내는 재미도 쏠쏠하다. 추억은 곧 행복이기에 다양한 각도로 자연 곳곳의 모습과 싱글명글한 나의 모습을 촬영한다. 하강 시점에 다다르면, 감탄을 유발하는 활기찬 액션의 묘기로 짜릿함을 높여준다. 이 짜릿함은 비행 전 두려움을 감쪽같이 잊게 만드는 정도이다. 이렇게 하늘과 가까워지고 교감하는 체험을 모두 곡성에서 즐겼다.

카누 : 목포의 바다와 함께하는 뱃놀이

작년 가을, 목포에서 카누 체험을 했다. 4명이 한 팀을 이뤄 배에 탑승했다. 당시, 5팀이 경쟁했었는데,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물을 튀기며 동심의

로 돌아갔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해수를 바탕으로 공원처럼 구성된 코스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왕복 20분가량 소요된다.

탐승 위치에 따라 좌우를 번갈아 가며 또는 한쪽을 맡아, 호흡을 맞춰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간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 금방 방향이 틀어지거나 물살에 밀려 나아가질 못한다. 나름 두툼한 노를 젓다 보면 팔 근육이 저려오지만, 상대 카누와 접촉하면 승부욕이 불타오른다. 물을 튀기며 익살 넘치는 표정으로 장난을 치다보면, 걱정과 고민은 눈 녹듯 사라진다. 종착지에 다다르면 팀원들과 의기투합하여 힘을 내고 서로를 다독인다. 그 순간의 협동심은 십년 지기 친구만큼이나 죽이 척척 맞다. 작년 가을, 목포에서의 칼바람은 내게 후련함을 선사해주었다.

요트 : 여수에서 만난 고급스러운 한 스푼

작년 11월 초, 가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수 여행을 다녀왔다. 겨울이 오기 전, 가을 바다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에 요트를 탔다. 1시간 동안 여유롭게 즐기는 요트투어를 오후 4시경 탐승했다.

일몰에 다가가기 위해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뱃머리에 비스듬히 누워 즐기는 뱃놀이는 ‘자유인’의 느낌을 마구 선사했다. 철썹거리는 파도 소리, 펄럭이는 돛대와 함께 여수 바다에 스며들었다.

친구와 여수 바다 그리고 노을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조종석에 올라 가볍게 조종도 했다. 핸들을 미세하게 움직이다 보면,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이는 배의 느낌을 받는다. 항해사의 현장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항해의 섬세함을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1시간 동안 자유로움과 고급스러움을 맘껏 충족했다. 강렬한 액티비티가 아닌 우아한 액티비티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해상케이블카 : 노래와 함께 여수 밤바다 감성에 빠지다.

여수 오동도 인근의 자산공원, 돌산의 돌산공원에서 편도와 왕복으로 해상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특히, 바닥이 투명한 탐승 캐이지가 있는데 탐승 초반에는 짜릿함과 개운함을 동시에 맞볼 수 있다. 좋았던 점은 탐승 캐이지 내부의 블루투스를 이용해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의 취향과 감성에 맞는 노래를 들으면서, 왕복 20분가량 여수 밤바다와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케이블카 역시 요트처럼 강렬하고 역동적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우아하고 느린 액티비티이다. 그래서 탐승한지 5분정도 지나면 편안함과 안정감, 여유가 느껴진다. 밤이 가져다주는 감성과 안정감에 음악과 함께, 야경과 함께 취해보는 것도 근사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남도의 매력을 한껏 살린 액티비티 관광자원 발굴의 중요성

개인적으로 남도의 매력을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첫째, 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음식과 맛’이다. 그리고 둘째, ‘아름다운 자연’이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남도는 수많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액티비티, 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수라고 생각된다. 최근, 제주도에 이어 엑스포 건물에 아르떼뮤지엄 미디어아트 전시가 들어섰다. 아울러, 아쿠아플라넷, 루지, 해상케이블카, 쥘트랙, 패러글라이딩, 해양레일바이크, 예술랜드, 요트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여행객이 여수를 찾고 기억한다. 나 역시, 여수에서의 추억이 가장 많이 남는다.

남도의 매력을 한껏 살린 다양한 액티비티 관광자원이 발굴되기를 기대해본다. 

민주광장, 오월의 신전이 되다

주홍_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총감독



1980년 5월, 나는 열세 살의 눈으로 그 광장을 보았다.

분수대 민주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총 앞에서도 용기 있었고 가난했지만 풍요로웠다. 나는 어른이 되고 나서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항쟁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기억의 공유는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한 민주사회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41년이 흘렀다. 2021오월정신릴레이아트-‘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1980년 5월 27일 아침, 최후의 항전을 하며 목숨을 바친 열사들이 떠올랐다.

죽음을 알고 이 도청에 남았던 그분들….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18분, 광장에서 아이들은 스케이트 보드를 타며 놀고 있고, 민주광장 시계탑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민주광장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디딤소리의 공동체를 깨우는 북소리로 2021오월정신릴레이아트-‘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융합예술제가 시작됐다. 북소리가 끝나자 최보결과 여신들의 춤이 이어지고 지신

밟기를 하듯 오월어머니들과 광주시민들이 손을 잡고 평화의 춤을 추며 하나가 되었다. 그 춤은 태극무늬처럼 회오리가 되어 뉴욕에서 온 여성 신학자 현경교수를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에 모셨다.

“저는 이 광주의 민주광장에 오면서 세 가지 영감을 받았어요. ‘청년 예수’, ‘지혜로운 할머니’, ‘생명력 가득한 푸른 무등산’이 바로 그 영감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세 개의 이미지는 인류공동체와 광주의 집단무의식에 내재된 원형이고 상징이었다. 광장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현경 교수와 함께하는 즉문즉답 토크쇼에 참여하며 질문을 했고, 현경 교수는 “협오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청년 예수의 목소리로 답하고, 이주민이나 장애우의 아픈 현실에는 경험 많은 지혜로운 할머니로, 때론 모든 것을 다 품고 들어주는 무한한 생명력의 무등산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혜를 나누었다. 오래된 집단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승화로 이끄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함께 추는 춤으로 경직된 기운을 바꾸고, 깊게 듣고 공감하고 통찰하며 각자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지혜를 이끌어내는 신성한 의식 같은 축제였다.

50명의 화가들과 10팀의 시민작가 가족들은 광장 곳곳에서 걸개그림을 그리며 함께 했다. 60여 점의 걸개그림이 완성되고 광장 바닥에 나란히 펼쳐지자, 시민들은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봤다. 그림들은 민주주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끝나지 않는 운동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군부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고통받고 있는 민주시민들을 응원하는 전국의 예술가들이 광장에 모여 그림으로 연대했다. 그림들은 '2021Myanmar=1980Gwangju'를 통렬하게 말하고 있었다. 배우 이당금이 꽃을 가득 품고 광장의 걸개그림 앞에 등장했다. 완성된 그림 한 점 한 점에 현화하는 퍼포먼스로 그림들은 숨을 쉬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만 같았다. 오래된 미래에서 현재로 온 '예술 곳'이었다.

인간(人間)의 '간(間)' 자는 사이를 뜻한다. 인간 세상은 관계로 창조되고, 인간의 인식프레임은 일체를 펼치고 규정한다. 신성한 시선은 텅어리라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체와 물체의 사이, 존재와 존재 사이, 텅 비었다고 인식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요, 예술은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며, 몸의 움직임과 감각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한다. 예술가들이 신들린 듯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예술가는 '사이'에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2021오월정신릴레이아트-‘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이 행사의 현장에 있었던 예술가들과 시민들은 민주광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다. 평화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었고, 미래를 예견하는 대화를 나눴으며, 신명 나는 연주와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5·18민주광장은 민주공동체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빛을 발하며 ‘오월의 신전’이 되었다.



1980년 5월, 군부쿠데타에 맞서 모인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원형광장에 모여,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발언하며 지혜를 모았고, 그 집단지성의 힘은 밥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대동세상 10일간의 시간을 공유했듯이 우리는 오월광장에서 신성한 집단지성의 평화의 힘과 지혜를 세계지성의 이름으로 공유했다. 이렇게 다양한 예술과 인문학이 결합된 축제는 시민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공명을 일으켰다. *nm*

예술의 거리, 어디로 갈까요?



김옥열_ 사진작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다.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대책없는 일. 대개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만 굴리는 관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 내돈 아니니 아무렇게나 퍼붓기 때문이다.

예술의 거리가 그렇다. 지난 수십 년 간 예술의 거리엔 참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길 바닥 뒤엎기만 수차례, 안내판과 기둥 세우기도 수차례. 어느 날엔 조각품들이, 언젠는 루미나에가, 또 언젠가는 공연무대와 전시대가 들어섰던가 싶는데 남은 건 없다. 헤아릴 수 없는 돈이 아깝다. 마치 들어갈 수 없는 길로 변한듯한 예술의 거리 모습이 안타깝다.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2021 호남한국학 열린강좌 ‘바깥에서 바라본 호남, 그리고 광주’ 성황리에 마무리



‘바깥에서 바라본 호남, 그리고 광주’ 주제로 열린 2021 호남 한국학 열린 강좌가, 4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21(토) 화순 일원 답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역사기록 및 유산기, 여행기 등을 통해 바깥의 시선으로 호남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호남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일곱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광주, 도심 속 시민 공간 만나기’



‘광주, 도심 속 시민 공간 만나기’ 주제로 일곱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행사가, 지난 8. 26(목) 재단 임직원 및 시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공간, 리노베이션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광주공원 시민회관 탐방을 통해서, 도시의 역사가 내재되어 스며든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고, 문화도시 광주의 숨겨진 보물을 시민들과 공감하고자 마련하였다.

제10기 역사문화시민대학 ‘역사 속 질병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미래’ 개강



‘역사 속 질병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미래’란 주제로 제10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이 9월 1일(수)부터 9월 15일(수)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4강좌 1답사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 1강좌 9.1(수), 「건강과 질병의 이해(치유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전흥준 하나통합의원 원장, 의학박사) ▲ 2강좌 9. 7(화), 「현대사 속의 질병」(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 3강좌 9. 8(수), 「재난으로 바라 본 사람과 인권」(최완욱 광주장애인권익연구소 소장) ▲ 4강좌 9. 14(화), 「감염병과 공공의료, 도시의 미래」(박형철 의학박사, 예방의학 전문의)로 구성되었다. 한편, 올해로 열번째를 맞이한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지난 2011년부터 기후, 질병, 음식, 여행, 사랑, 풍자와 해학 등 독특하고 깊이 있는 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큰 호평을 받아왔다.

•조직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통권 54호) 기획 회의 개최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통권 54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김정희 편집위원장, 김향득, 박신영, 김옥렬 편집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6. 18(금) 11시,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 재단

이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문화담론지 『창』은 문화정책 현안과 문화 담론 외에도 문화 청년그룹 소개, 문화리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뿐만 아니라 행정, 유관기관, 시민문화예술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021년 2차 운영위원회 열려 - 김양균 운영위원장 선임



2021년 2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7. 28(수)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공식적인 운영위원장에 김양균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운영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위원도 충원키로 하였다. 또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연대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 재단의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연대

‘전남일신방직 보존과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열려



전남일신방직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 16(수) 오후 2시 광주ngo센터에서 열렸다.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 담당 부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나서 전남일신방직 부지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시민대책위는 토론회 및 자체 워크숍을 거쳐서 도출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대책위의 향후 방향 및 동 시안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선 7기 남은 1년, 광주시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포럼 개최



민선 7기 남은 1년, 광주시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포럼이 지난 6. 24(목)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강당에서 열렸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상넷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 재단을 포함하여 지역의 20여 개 시민문화예술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광주시의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진행 현황 공유와 남은 1년 실천 방안을 논하고, 도출된 결과는 정책과 사업 반영을 목적으로 마련한 공론의 장이었다.

‘예술인 권리와 지위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7. 8(목)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강당에서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과 예술 활동 과정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창작 여건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론의 장이었다.

재단·회원소식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 간담회 열려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을 맞아 문화경제부시장과의 간담회가 지난 8월 25(목)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문화 발전 및 아문도시 조성사업 과정의 광주시의 역할, 예술인들이 행복한 문화도시, 문화협치 및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개선 등 격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이날 제안된 정책 및 사업은 이른 시일내에 광주시가 피드백을 해주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등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는 여행’을 가리켜 이르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을 다듬은 말이다. 양 기관은 5·18민주화운동과 광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광주만의 역사교훈여행 콘텐츠 확보를 위한 자원 발굴·지원, 5·18민주화운동 관련 DB 공유, 관광 콘텐츠 기획, 역사교훈여행도시 광주 홍보 마케팅 협조,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과 지역 역사문화·관광 동반성장에 필요한 노력과 상호 지원 등을 약속했다.

— <전남일보> 발췌

주흥 운영위원(샌드애니메이션 작가), 광주시교육청 ‘삶의 대화’ 초청 강연



광주시교육청이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빛고을혁신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5월 25일~8월 13일 2021 빛고을혁신학교 ‘삶과 대화’를 운영했다. ‘삶과 대화’는 학교 밖 배움의 공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사회 각 분야 12명의 인물을 초청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만남에는 전시기획자이자 치유예술가인 샌드애니메이션 주흥 작가가 초청됐다. 만남 당일 교사들은 ‘5·18과 시민, 예술’을 주제로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 <무등일보> 발췌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남성숙 이사(광주관광재단 이사장), 광주관광재단-5·18기념재단 업무협약



5·18기념재단(이사장 정동년)과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이 광주 역사교훈여행 콘텐츠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역사교훈여행은 ‘재난 현장이나 참상지

진시영 운영위원(미디어아티스트),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미디어파사드 공연 진행



광주 북구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진행했던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오는 7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8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빛의 나무(진시영 작)' 작품을 제작해 광주비엔날레 기간 영상을 상영했다.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빌라이트 인 북구'라는 주제로 비엔날레 문화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발췌

김선출(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전 이사, 신임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선출 신임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임자를 찾지못해 1년여 동안 공석이었던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김선출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가 임명됐다. 4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김선출 신임 대표이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오는 2023년 8월 1일까지 2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전남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적임자를 찾기 위해 4차례의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번 4차에서는 11명이 응모해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결과 2명을 인사권자인 이사장(도지사)에게 추천, 최종 결정했다.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민간경영체계가 구축된 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면서 “앞으로 여향 전남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남도일보> 발췌

김상집(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상원평전』 초청 독서 토크쇼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하 독서동아리인 키우리독서회는 지난 5일 전일빌딩 9층 대강당에서 200회 기념으로 『윤상원평전』



저자인 김상집 선생을 초청, 독서토크쇼를 개최했다.

『윤상원 평전』은 5·18 41주기를 맞아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윤상원과 막역했던 후배이자 끝까지 함께 싸운 동지였던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 이사장이 근접거리에서 본 윤상원과 70년대 후반부터 80년 광주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현장 중심으로 기술한 책이다. 에필로그에서는 윤상원과 들불야학 동료였던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서 연주됐고, 지금은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으로 불리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완성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이민원(광주대 교수) 이사, 광주시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총괄위원회 공동위원장 참여

광주광역시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총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총괄위원회’는 김종호 행정부시장과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날 회의는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연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중간 점검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전 공공기관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에너지, 문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농생명, 교통 등 5개 분과로 혁신도시 연구기획 TF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서 추천한 위원과 부서장, 관련 분야 전문가로 총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시사매거진> 발췌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강 원(국회의원 보좌관)
- 이경섭(퇴직교원)
- 박남규(프리랜서 강사)
- 김문진(문화시민)
- 김정숙(문화시민)

재단 설문조사 결과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21 회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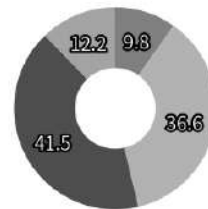
설문기간 : 2021.07.06(화) ~ 07.30(금)

설문방식 : 구글 설문지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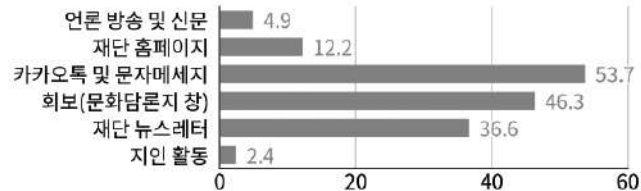
- 본 설문조사는 배포(244명), 응답자 41명(16.8%)으로 남성(80.5%), 여성(19.5%)
- 응답자 연령 분포는 20대(2.4%), 40대(7.3%), 50대(39%), 60대(34.1%), 70대(17.1%)
- 응답자 재단 가입연도는 2005년~2010년(26.8%), 2010년~2015년(17.1%), 2015년~2021년(56.1%)

2. 회원님은 재단 활동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잘 안다 보통 잘 모름 전혀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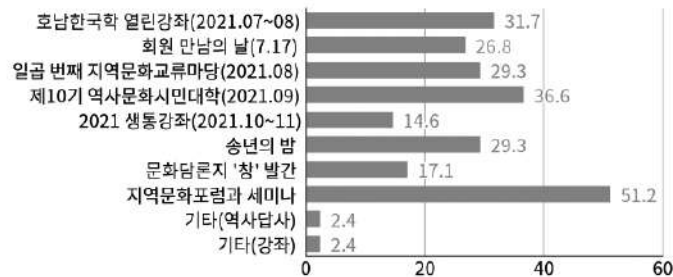
3. 회원님은 재단 소식을 어떤 경로로 접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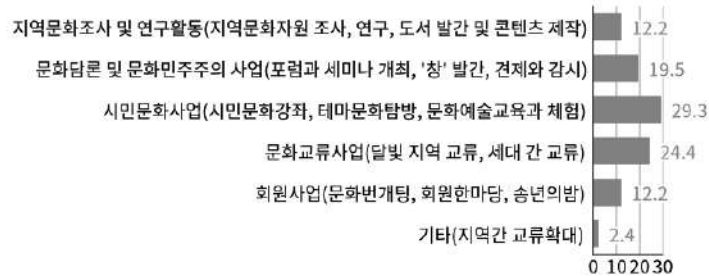
4. 회원님께서 최근 1년간 재단 추진 사업 중 알고 있거나 참여한 사업 내용을 선택해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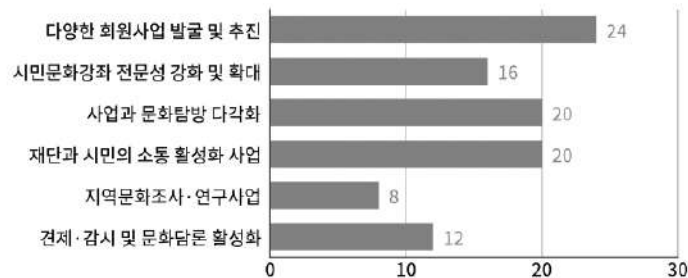
**5. 회원님께서 하반기 재단 추진 사업과 프로그램 중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중복선택가능)**



6. 회원님은 재단 사업 중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7. 재단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정희 시인『광주문학』편집주간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스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성환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차일헌 (사)빛고을사진문화포럼 이사장, 세무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팀장

김남중 청년인턴

강휘연 청년인턴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광주문학』 편집주간, 시인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조운윤 시인

느닷없이 다가온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것을 쓸어 갔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의 풍경이나 방식이 달라지겠지요. 자연재해도 아니면서 정체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전에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숨을 고르고 삶을 단순하고 여백을 두면서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2021년 가을호 『창』을 열었습니다. 고유명사이지만 집합명사인 『창』의 표지에서 풀꽃 향기가 날립니다. 이번 호에서도 『창』을 통해 지역의 문화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소통을 공유하려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비록 영상이나 전자 매체에 조금은 위축되더라도 종이잡지의 정확하고 개성적인 글쓰기는 오래 우아(?)하게 사랑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집기획 '문화도시 광주문화예술인이 살만한 도시인가?'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황 분석과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의 효율성 여부를 포함하여 사례와 의견을 담아 보았습니다. 하드웨어 보다는 콘텐츠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광주관광재단에 대한 현장 기자의 적극적 제안과 문화현장의 다른 색깔 이야기, 문화청년그룹의 젊은 스타트업 기업 이야기 등도 짜임새 있게 담아 보았습니다. 『창』은 늘 현재형의 지역문화를 수요자인 독자에게 현실의 모순과 변화의 방향성까지 전달하려고 합니다. 수고해주신 실무진과 편집위원들 비대면으로 차나 한잔 하시죠. _ 김정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승촌보의 늦가을 정취

승촌보는 나주평야 일대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보(沓)이다.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총공사비 3,35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 10월 22일 완공되었다. 길이 512m의 보는 가동보 180m, 고정보 구간 332m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높이는 9m이다. 보의 형태는 나주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형상화하여 디자인되었다. 가로길이 50m와 30m의 2가지 형태의 수문이 각 2개씩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900만㎡의 저수수량을 확보한다. 보의 좌측에는 800kw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연간 464만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인근에는 영산강문화관, 승촌보캠핑장, 축구장 등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현재진행형! 광주의 뜨거운 문화현장!”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와 만남
2021.09.04(토)

10:00 ~ 13:50 대구 방문
14:00 ~ 15:30 지속 가능한 교육과 연대를 위한 간담회
- 인사/발표 및 소개
- 객간 : 지속 가능한 교육과 연대 방안 (대구/광주 각 1인)
- 미디어나눔
16:00 ~ 18:00 대구 문화탐방
(대구/광주, 2021년 9.12일(토)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8:00 ~ 19:30 저녁식사 및 공연

요금 광주문화재단 참가금 5000원, 9월 5000원
참가비 10,000원 (별첨교류비 포함 별도 부활)
문의 062-234-2727

주최 : 광주문화재단(주최), 대구시민문화재단
주관 : 광주문화재단(주관), 대구문화재단(주관)

역사 속 질병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미래
2021. 9. 1(수) - 9. 14(화)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요일 신청수 40명
참가비 2만원(회원 1만원), 일사비 포함(주거비 등 없음)
개최 광주광역시 019-107-318262 (제1지역문화진흥추진단)
연락처 062-234-2727

프로그램

구분	일시	주최	주최/주최자
1일	9. 1(수)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2일	9. 2(목)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3일	9. 3(금)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4일	9. 14(화)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5일	9. 15(수)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연세대학교(역사학과) / (주최/주최자)

지역문화교류추진단



민간자본의 공공재 잠식과 공공적 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 김동찬 의원 **사회** 박순선 시민대책위 간사

원형 [1부] 발제
- 방법을 동원한 민간자본의 가스 산업 잠식과 그 위험성
- 민간자본에 대한 공공적 통제 어떻게 가능한가?
- 민간자본의 공공재 잠식과 공공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부] 지정토론
[3부] 종합토론

2021.09.06(화) 15:00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의 역할
문헌발표

포용적이고, 활력이 있고, 환경친화적 도시를 위해 문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어떻게 도시를 살리고 도시를 바꾸고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문화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하고자 하는 분은, 9월 14일(수) 오후 3시부터 9월 15일(목) 오후 3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 9. 9(수)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신청 링크 : <https://url.kr/gang27> 또는 062-234-2727
문의 : 062-234-2727

발제
발제 1.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의 역할
- 김동찬, 김동찬(국립중앙도서관)
발제 2. 문화로 풀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의 역할
- 박순선, 박순선(국립중앙도서관)

토론
- 김동찬, 김동찬, 김동찬(국립중앙도서관)
- 박순선, 박순선, 박순선(국립중앙도서관)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평가토론회
2021. 9. 2. (목) 오후 2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8층)

발제자 : 참가단체 및 41주년 기념행사 추진 단체 대표 및 실무자

토론
1. 제41주년 기념행사 보고
2.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평가
3.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평가
4.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평가

* 본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 단체 대표 및 실무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 단체 대표 및 실무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 단체 대표 및 실무자

「광주교육 청림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The 청림하면 **다** 행복해요!

